

개종의 역사가 넘치는 아시아 선교

이재록 목사 초청 연합대성회를 기반으로 지금 아시아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발한 선교 사역을 이루며 수많은 개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일곱 교회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다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통해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외침을 듣는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 (1)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 말씀대로 행해 나갔기 때문에 일곱 교회 중 유일하게 칭찬만 받았다.

“권능의 역사가 따르니 선교 사역 쉽고 행복합니다”

이재록 목사의 저서와 만민뉴스, GCN 방송, 그리고 손수건 기도를 통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펼쳐시는 선교 사역이 너무 쉽고 행복하다는 이재원 선교사의 태국 선교 이야기.

만민뉴스

제498호 2011년 9월 1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폭발적 성령의 역사! 아시아에도...

전 세계 69억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살고 있으며 세계 4대 종교인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의 발상지 아시아.

이곳에도 만민 사역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알알이 맺혀가고 있다. 지난 9월 6일에 네팔 동부 자바 지역에서 손수건 집회가 열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줄 때 각색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오는 19일부터는 일본 오사카, 마이즈루, 교토, 나고야 4개 지역에서 손수건 집회가 열린다. 또한 지난 8일~9일, 인도에서 '텔리 만민선교센터 협력목회자 세미나'가 열려 인도와 방글라데시 16개 주 목회자들에게 만민의 사역을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이 목사의 다국어 신앙 서적, 아시아 전역을 커버하는 THAICOM5와 NSS6 위성, 필리핀 케이블 채널, 인도 아를바

꾸 GCN, 파키스탄 이삭 TV 등 방송사와 20개 언어로 발행되는 '만민뉴스'를 통해 성결복음과 하나님 권능이 아시아 전역에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선교 사역은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열린 네 차례의 연합대성회를 기반으로 한다. 지난 2000년 9월 '일본 나고야 신유대성회'와 10월 '파키스탄 연합대성회'에 이어 2001년 9월에는 '필리핀 연합대성회'가

열렸다.

특히 2002년 10월에는 인도 첸나이 마라나 해변에서 연인원 3백만 명 이상이 운집한 가운데 '인도 연합대성회'가 열렸다. 타밀라루 주 정부는 '강제 개종금지 규정'을 발표해 성회 개최를 휘방했으나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목발과 휠체어를 버리고 걷고, 에이즈(AIDS)가 치유되는 권능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이 개종했다.



▲ 몽골 손수건 집회



▲ 인도 연합대성회



▲ 카자흐스탄 손수건 집회



▲ 네팔, 부탄 손수건 집회



▲ 베트남 목회자 세미나



▲ 파키스탄 연합대성회



▲ 인도네시아 파푸아 손수건 집회



▲ 스리랑카 목회자 세미나



▲ 태국 손수건 집회



▲ 말레이시아 손수건 집회



▲ 북방 M시 지도자 세미나



▲ 필리핀 연합대성회